

## '이이남 미디어아트+국악관현악' ... 황홀경 공연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광주를 대표하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와 국립관현악단의 협업 무대가 국립극장에서 펼쳐진다.

이이남스튜디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국악 관현악단과 미디어아트 협업 무대 '황홀경'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국악관현악에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이번 공연에서 이 작가는 전통음악에 내재된 음악적 깊이와 정서를 현대적인 미디어아트로 표현한다.

작곡가 김창환의 '취(吹)하고 타(打)하다', 작곡가 장석진의 '조토(焦土)의 꽃', 벨기에 작곡가 보두앵 드 제르(Baudouin de Jaer)의 '더 라이온 댄스(The Lion Dance)'에 이어 이

작가의 협업 무대가 펼쳐진다.

이 작가는 직접 선곡한 '금잔디'와 '영원한 왕국'을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해 미디어아트로 구현했다.

작품은 네 면의 음향반사판이 거대 스크린으로 변해 60인조 국악관현악 연주와 어우러져 시각·청각을 자극한다.

국악관현악 '금잔디'는 지난 2019년 '내셔널&인터내셔널' 무대에서 조연였으며 중국 요동지역의 고구려 산성을 담사하면서 증발한 한송이의 꽃을 주제로 만들었다.

곡 '영원한 왕국'은 북한 평안남도에 위치한 고구려 고분 강서대묘(江西大墓) 내부에 그려진 벽화 '사신도(四信圖)'를 보고 창작됐다.



이 작가는 고구려 사신도의 강하고 충만한 기운을 무대의 모든 공간에 빛으로 채워 표현한다.

이이남 작가는 "이번 무대는 국악관현악의 에너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중과 소통하는 지점을 만들 어냈다"며 "전통악기와 음악이 현대적 기술과 예술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무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영옥 기자

'어린이들이 꿈꾸는 세상'  
순천기적의도서관, 전시

순천기적의도서관에서는 어린이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및 전시 '어린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6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기적의도서관 내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폴란드 대표 아동문학 '마치우시 왕 1세'의 원화 11점을 전시한다. '마치우시 왕 1세'는 어린이의 권리, 어린이의 꿈 그리고 어린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담은 작품으로 폴란드 어린이들의 필독서이자 가장 사랑받는 문학작품이다.

이와 함께, 순천 어린이들이 스스로 주장하고 제정한 권리를 순천 어린이들이 그린 「순천 어린이 선언문」 원화 10점도 공개 한다. 더불어 다양한 국적의 누구나 순천 어린이 선언문을 이해하고 순천 어린이들의 권리를 존중·보호할 수 있도록 다국어(8개 국어) 번역본도 같이 선보인다.

오는 14일에는 전시와 연계하여 '마치우시 왕 1세'의 번역가이자 기획가인 이지원 교수(서울시립대)를 모시고 북 토크를 진행한다. 폴란드 아동인권 옹호의 선구자이자 어린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한 작가 '야누시 코르차'의 작품세계와 폴란드에서 '마치우시 왕 1세'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순천=조준익 기자

### 담양에코센터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점묘화 전시 개최

초등학생 대상 점묘화 체험학습 · 기상기후사진전 수상작도 함께 전시

담양에코센터가 11일부터 호남기후변화체험관에서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점묘화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계절에 따라 활동, 분포역, 개체군의 크기 변화 등이 뚜렷하거나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에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한 생물종인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중 동박새 등 45종을

선정, 에코센터 해설사가 그린 점묘화를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서 전시한 점묘화는 일반적으로 미술의 사실화와 달리 생물학 세계에 전통적으로 그려온 과학적인 묘사법으로, 생물을 직접 보면 수만 개의 점을 찍는 과정에서 그 종을 동정(同定, Identification)하고 분류의 핵심을 찾아낼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점묘화 체험학습도 함께 진행하며, 기상현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확산을 위해 광주지방기상청의 협조를 받아 6월 30일까지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복카페에서 기상기후사진전 수상작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담양=조승채 기자

### 아시아 문학, 미리 만난다...강좌 · 대담 · 작가만남 풍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전남대 · 조선대...6월 9일~9월 29일

문학을 통해 아시아의 현실을 짚어보는 강좌·대담·작가와의 만남 등이 광주에서 잇따라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학페스티벌조직위는 '미리 만나는 아시아문학'이 9월 29일까지 문화전당과 전남대, 조선대 등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제4회 아시아문화페스티벌을 앞두고 마련된 행사는 강좌·대담·작가와의 만남 등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소설가 김남일씨가 9일 오후 4시 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서 '동아시아

의 작가들이 처음 만난 근대의 얼굴' 강좌로 문을 연다. 일본의 소설가나 쓰쓰 소세키가 바라본 런던 풍경을 비롯해, 루쉰의 '센다이, 이광수의 도쿄, 염상섭의 서울' 등 동아시아 작가가 마주했던 근대의 모습을 집중 소개한다.

이어 23일 조선대에서 열리는 소설가 심윤경씨의 '인류가 마주친 폭력과 갈등의 맨얼굴—동유럽 작가들의 목소리' 강좌에서는 안드레이 쿠르코프(우크라이나)의 '펭귄의 우울', 스페틀라나 일렉시에비치(벨라루시)의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헤르타 헬러(루마니아·독일)의 '그때 이미 여우는 사냥꾼이었다' 등 동유럽 작가들의 작품을 이야기한다.

목포대 신정호 교수는 다음달 7일 문화전당에서 '중국의 감염 질병과 역(易) 이야기'를 통해 질병을 제압하는 중국의 독특한 방식을 알아본다.

명지대 곽형덕 교수는 '아시아,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기록하다'를 주제로 같은달 21일 문화전당에서 오기나와 문제를 다룬다.

동아대 손석주 교수는 '미술적 사실주의로 풀어내는 인도네시아의 현대사 그리고 알빈 광의 시'(8월 25일 문화전당)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현대사를 논한다. /이영옥 기자

###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 4년만의 광주무대

15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아시아 최정상의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Maytree)'의 무대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15일 오후 7시 30분 야외광장에서 메이트리는 공연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이후 4년만에 광주에서 공연하는 메이트리는 이번 무대를 통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인다.

삼바 리듬의 경쾌한 대표곡을 비롯해 '그대 다시 내게'·'비행기' 등 친숙한 가요를 아카펠라로 들려준다.

또 '상어가족' 디즈니 OST 메들리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와 '서를 오프 라이프(Circle of Life)' 텐 더 비트 어라운드(Ten the Beat Around) 등 메이트리의 색깔을 느낄 수 있는 곡을 연주한다.

이 밖에도 이번 무대에서 메이트리는 방송 광고 음악을 통해 선보인 다양한 아카펠라 곡도 선보인다.

메이트리는 '5월의 나무'라는 뜻으로 대만의 예술의 전당이라 불리는 타이페이 국립극장 전석 매진, 유럽합창올림픽 금메달, 오스트리아 세계아카펠라대회에서 수상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메이트리는 각종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할 정도로 높은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는 아시아 최고의 아카펠라 그룹이다"며 "메이트리 무대를 통해 여름 더위를 날릴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

### 박다은 개인전 '가장 밝은 어둠으로'

주안미술관 13~24일까지

주안미술관에서는 13일부터 박다은 작가 개인전 '가장 밝은 어둠으로'가 열린다.

이번 전시 타이틀 '가장 밝은 어둠으로'는 빛과 어둠이라는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스스로 성찰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그의 작업에서 어둠은 인간이 감추고 싶은 본연의 모습과 닮아있고, 트라우마, 외로움, 불안감과 공허함 같은 정신적 결핍과 상처들을 대신 이야기한다.

이번 박다은 작가 개인전 '가장 밝은 어둠으로'는 입장료가 무료이며, 전 연령 관람할 수 있다.

/김도기 기자

### 보성아트홀 '춘곡(春谷) 김홍배 서예전'

보성군 율포해수녹차센터 '보성아트홀'에서 서예가 김홍배 작가의 '춘곡 김홍배 작가 서예전'이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지역 작가들을 위한 무료 전시 공간으로 2021년 문을 연 '보성 아트홀'에서 열리는 11번째 기획전시다.

'춘곡 김홍배 작가 서예전'은 선조를 지혜가 담긴 명언과 글귀를 작가 특유의 서체로 다시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표현하는 서예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한편, 김홍배 작가는 벌교 출신으로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전개해온

/보성=장국도 기자



아모레 카운셀러

## 전국 3만6천명 여성 최고의 직업

\* 문의만 하여도 선물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 화장품  
**판매 1위**

대한민국  
기초 화장품  
**1위  
설화수**

대한민국  
색조 화장품  
**1위  
헤라**

제약에서  
만든  
건강식품



1. 여성으로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사업입니다.

판매와 재판매가 손쉽고 고객과 본인이 함께 이뻐지는 일석이조!!

2.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브랜드 입니다.

설명이 필요없이 판매가 쉬운 대한민국 명품 화장품입니다.

3. 기본수당 + 영업판매수당 + 각종 판촉지원  
+ 교육지원 + 해외여행 기회..... 등



Sulwhasoo

아모레 신안특약점 수퍼마스터 송광자

**010-3634-5083  
062-522-2352 / 2353**